

제 1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

성 명 (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의미의 상하 관계로 짝지은 것은?

- ① 남자 - 여자                      ② 영화 - 연극
- ③ 생물 - 식물                      ④ 책상 - 의자

2. 다음 표준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ㅍ]으로 발음한다. 다만, ‘ㅍ-’은 자음 앞에서 [ㅍ]으로 발음한다.

- ① 앓다[안따]    ② 뵈다[밭따]    ③ 넓다[널따]    ④ 없다[업따]

3. 밑줄 친 낱말이 바르게 사용된 문장은?

- ① 약을 다린다.
- ② 수출량을 더 늘인다.
- ③ 김장 배추를 절인다.
- ④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부친다.

4.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너, 선생님이 빨리 오래.
- ②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③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 ④ 아버지,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데 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나) 첨지 영감은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이었지. ㉠ 하루는 영감의 소문을 듣고 근처 불타산에 있는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왔어. 그랬더니 영감은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쇠뿔을 퍼 주었지. 그 때 우물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씻고 있던 쌀을 스님에게 주었지. 그러자 스님은 며느리에게 이 집에 큰 재앙이 닥칠 테니 빨리 몸을 피하라고 얘기해 주었지.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아기를 업고 머리에는 베 짜는 틀을 이고 옆에 개를 불러 산으로 달아났지. 그런데 그 때 갑자기 큰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리지 뭐야.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며느리는 화석이 되고 말았지. 왜냐하면 스님이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

(다)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인지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인지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인지 으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인지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인지 사람 모양하구, 인지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구, 그 아래 개 모양 걸은, 그런 화석이 상계두 있단 말야. 한데 그 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애 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멧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야.

- 김용규 구술, 조희웅 채록, 「용소(龍沼)와 며느리바위」 -

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의 증거물이 있다.
- ② 주인공은 신적인 인물이다.
- ③ 구체적 시간과 장소가 없다.
- ④ 영웅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다.

6. 다음 글과 (나)의 공통적인 내용 조직 방법은?

나도 벌써 일어나서 장인님의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꼴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 ① 인과적 조직 방법                      ② 주제별 조직 방법
- ③ 공간적 조직 방법                      ④ 문제 해결식 조직 방법

7.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또는                                      ② 그런데
- ③ 그러면                                  ④ 왜냐하면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뚝이: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지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짙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주진(煙竹塵)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각지 회자죽(喜子竹), 오동수복(烏銅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暄譁)를 금하라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흘뚜기 뽑아다 붙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 [ ] ㉠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생 원: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예예.

생 원: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早食) 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밭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걸걸이 다 찾아다녀도 쟈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 작자 미상, 「봉산탈춤」 -

8. 위와 같은 전통 가면극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풍자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 ② 종합 예술적 성격을 지닌다.
- ③ 익살스러운 표현이 사용된다.
- ④ 전문적인 무대장치가 필요하다.

9. 등장인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뚝이는 생원에게 조롱의 대상이다.
- ② 양반들은 말뚝이를 두려워하고 있다.
- ③ 생원과 말뚝이는 수평적 신분 관계이다.
- ④ 말뚝이는 양반들을 이중적 태도로 대한다.

10.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소리를 높여
- ② 먹살을 잡으며
- ③ 힘없는 표정으로
- ④ 샷대질을 하면서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나)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땀땀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발에는 당추 심고 뒷발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 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 물을 길어다가 십 리 방아 찼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썩새.

\* 뽕죽새, 뽕중새: '뽕죽, 뽕중'거리는 새의 모양을 빗대어 비꾼 모양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1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여성적 어조가 드러난다.
- ② (가)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 ③ (나)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 나타나 있다.
- ④ (나)는 시택 식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2. (가)의 형식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운의 사용
- ② 수미상관의 구조
- ③ 선경 후정의 구성
- ④ 민요조 3음보 사용

13. (가)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낭송 방법은?

- ① 유쾌하고 친진난만하게 읽는다.
- ② 슬픔을 참고 견뎌내듯 애절하게 읽는다.
- ③ 밝은 분위기를 살려 다정다감하게 읽는다.
- ④ 청자가 삶의 의욕을 느끼도록 힘차게 읽는다.

14. (나)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 유희                      ② 독백체 형식
- ③ 비유적 표현                  ④ 반복적 표현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芻국솟총 至지芻국솟총 於어思사臥와  
 ㉡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는다.

(나) 년넙회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籊약笠립은 씨 잇노라, 綠녹蓑사衣의 가져오나.  
 至지芻국솟총 至지芻국솟총 於어思사臥와  
 ㉢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다) 物물外외에 조흔 일이 漁어父부 생생涯애 아니러나.  
 비 떠라 비 떠라  
 ㉣ 漁어翁翁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至지芻국솟총 至지芻국솟총 於어思사臥와  
 四스時시興흥이 흥가지나 秋츨江강이 음듬이라.

(라) 간밤의 눈 갠 後후에 景경物물이 달랏고야.  
 이어라 이어라  
 ㉤ 압희는 萬만頃경琉류璃리 디희는 千千疊疊玉옥山산.  
 至지芻국솟총 至지芻국솟총 於어思사臥와  
 仙仙界계니가 佛佛界界니가 人人間간이 아니로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

15. 위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에 대한 그리움이 상징을 통해 함축적으로 드러난다.
- ② 종장과 종장 사이의 여음구를 통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 ③ 아름답고 한가한 어촌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노 젓는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함으로써 음악적 요소가 드러난다.

16. ㉠~㉤ 중 물아일체의 경지가 드러난 부분은?

- ① ㉠                      ② ㉡                      ③ ㉣                      ④ ㉤

17. ㉡와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 ②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③ 쓸쓸한 날이 옛날같이 늙었다/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 ④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18. (다)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십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 순 -
- ② 국화야, 너난 어이 삼월 동풍(三月東風)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나니.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이정보 -
- ③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양류(楊柳)에 너 끼인 제,  
 사공(沙工)은 어디 가고 빈 비만 밟혔고,  
 석양(夕陽)에 짝 일흔 골머기는 오락가락 하노매. - 조 현 -
- ④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드나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투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 -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인에게 옛 집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당신의 불편스런 심기를 주저앉히기보다 오늘을 더욱더 비참스럽게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집을 고쳐 짓고 싶은 그 은밀스런 소망을 자꾸만 밖으로 후벼 대고 있었다. 아내의 목적은 차라리 그 쪽에 있었던 것 같았다.

아내에 대한 나의 판단은 과연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가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 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옷케 이야기였다. 17, 8년 전, 고등 학교 1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시에서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 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비어진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에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디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나?”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 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내왔고 거기서 ㉡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보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노인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내게 ㉢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당신과 하룻밤을 재워 보내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옛 집의 모습과 옛날의 분위기 속에 자고 가게 해 주고 싶어서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이사를 나간 빈 집이 분명했다. 한테도 노인은 그 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 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 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다 이불 한 채와 ㉡옷궤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 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시인해 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 날 밤 그 옷궤 한 가지나마 옛 집 살림살이의 흔적으로 남겨서 나의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한 내력이 숨겨져 온 옷궤였다.

-이청준, 「눈길」-

1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점이 교차되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역순행적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③ 배경 묘사에 의해 새로운 사건이 예고되고 있다.
- ④ 요약적 진술로 긴박하게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20.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 있었다.
- ② 형 때문에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졌다.
- ③ 아내와 노인 사이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
- ④ 노인은 집이 팔린 사실을 처음엔 아들에게 숨기려 했다.

21. ㉠에 담긴 노인의 심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집 안에 아들을 들이기 꺼려한다.
- ② 밤늦게 집을 찾아온 아들이 성가시다.
- ③ 친척 누님을 먼저 찾아간 아들이 한심하다.
- ④ 집 앞을 서성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22. ㉠~㉢이 담고 있는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 - 아내와 어머니 간의 갈등 요인
- ② ㉡ - 친척 누님에 대한 어머니의 원망
- ③ ㉢ - 아들을 잇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
- ④ ㉣ -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간디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큰 폭력은 인간의 근원적인 영혼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 이득의 끊임없는 확대를 위해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제도화한 서양의 산업 문명이었다.

근대 산업 문명은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끊임없이 이기심을 자극하며, 금전과 물질의 노예로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평화와 명상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로 인하여 유럽의 노동 계급과 빈민에게 사회는 지옥이

되고, 비서구 지역의 수많은 민중은 제국주의의 침탈 밑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여기에서, 간디 사상에서 물레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드러난다. 간디는 모든 인도 사람들이 매일 한두 시간만이라도 물레질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물레질의 가치는 경제적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물레는 무엇보다 인간의 노역에 도움을 주면서 결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인간적 규모의 기계의 전형이다. 간디는 [A] 기계 자체에 대해 반대한 적은 없지만, 거대 기계에는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위계적인 사회 조직,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도시화, 낭비적 소비가 수반된다는 것을 주목했다. 생산 수단이 민중 자신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착취 구조가 종식된다고 할 때,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는 그 자체로 비인간화와 억압의 구조를 강화하기 쉬운 것이다.

간디는 산업화의 확대, 또는 경제 성장이 인간의 참다운 행복에 기여한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간디가 구상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자기 충족적인 소농촌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 기구의 소멸과 더불어 마을 민주주의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거기에서는 인간을 도외시한 이윤을 위한 이윤 추구도, 물질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비폭력과 사랑과 유대 속에 어울려 살 때에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자기 완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상에 매우 적합한 정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물레는 간디에게 그러한 공동체의 건설에 필요한 인간 심성의 교육에 알맞은 수단이기도 하였다. 물레질과 같은 단순하지만 생산적인 작업의 경험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분리 위에 기초하는 모든 불평등 사상의 문화적·심리적 토대의 소멸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먹을 빵을 손수 마련해 먹는 창조적 노동'에의 참여와 거기서 얻는 기쁨은 소박한 삶의 가치를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간디는 생각하였다.

-김종철, 「간디의 물레」-

23. 위 글에서 간디가 추구하는 가치는?

- ① 물레질을 이용한 산업화
- ② 거대 기계를 통한 도시화
- ③ 인간의 참다운 행복 실현
- ④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의 확대

24.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착취와 억압의 사회
- ② 복잡하고 위계적인 사회
- ③ 지배와 피지배 구조의 사회
- ④ 생산 수단이 인간의 손에 있는 사회

25. [A]에 사용된 내용 설명 방법은?

- ① 대조      ② 묘사      ③ 예시      ④ 서사

※ 확인사항

답을 OMR 카드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하였는가?